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다시 내가 설 자리를 믿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0개월만에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금방금방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버립니다. 써야 할 글은 벌써 4건, 읽어야 할 글은 수도 없이 밀려 저를 짓누릅니다. 새 수첩이 자꾸만 만남의 약속으로 채워져 갑니다. 어제 약속은 3건이었습니다. 늦을세라 택시를 잡아 탑니다. 옆차와 달을 락말락 좁다란 차선을 곡예처럼 질주하는 차동차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며 헤치며 쟁 걸음을 재촉하는 보도의 군중들...

아쉽게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제가 다시 '전쟁터'에 서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야 말로 제가 늘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실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이루어 놓은 것없이 바보처럼 흘러 보낸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10개월은 물리적으로 켈 수 있는 '바보의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이국의 세월 속에서 저는 몇가지 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미국의 인권운동(미국식 개념으로는 Civil Rights Movement)은 거의 전멸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널찍하고 깨끗한 어느 인권단체 사무실에서 만난 백인 '인권운동가'는 미얀마와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을 입에 거품 물면서 규탄하다가도 미국 양심수의 통계를 요구하는 저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것 외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의 인권 구현을 위하여 분투한다는 그 유명한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감옥문제를 전담한다는 여자 변호사도 흑인과 인디언 정치범에 관한 저의 물음을 별 안타깝거나 미안한 기색없이 "통계가 없다"며 잘라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뒷골목에 자리잡은 어느 '급진단체'의 흑인 활동가는 자조 어린 투로 "개들(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국 민중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돈과 빛은 모두 개들한테 간다"고 내뱉고는 저를 그윽히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I envy you." (당신들이 부럽다) 저는 미국의 인권운동이 앓고 있는 병을 바로 눈앞에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국제화 바람이 한국의 인권운동을 휩쓸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은 껌대기를 씹는 수준을 맴돌면서도 벌써 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했던 과거의 열정을 이제는 영어학원에 다니는 일에 쏟을 생각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과거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했던 만큼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도 값진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의 국제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영어 한마디 배울 새 없이 바닥을 발발 기고 있지만, 그런 우리 인권운동의 현실을 저 멀리 뉴욕 한 귀퉁이에서 민중과 함께 따돌림받고 있는 미국 활동가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나라 인권운동의 '국제화'란 결국 자기 나라 햇볕 들지 않는 곳에서 꺾박받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와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을 다른 나라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해 나가는 작업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민중의 요구와 희망에 깊이 뿌리박지 않은 '운동의 국제화'가 병들지 않을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저 '풍요로운 자유의 나라'가 10개월간 체류했던 한국의 인권운동가에게 가르쳐 준 한가지, 그것은 "다시 내가 설 자리를 굳건히 디더야 한다"였습니다.

사업보고

(1월 세째주~2월 들째주)

인권운동 사랑방 조직 개편 논의 완료

- 서준식 대표 복귀 이후 논의 되어 오던 사랑방 조직 개편안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기존의 홍보실, 정보자료실, 인권교육실, 연대실 사무국 4실 체제에서 사무국장제와 총무부를 신설하고 연대실을 없애는 것, 또한 운영위 산하에 기획·연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은 우선 주요한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과 활동가들의 보다 책임있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생, 사회단체 실습 가져

- 서울법대생 5명이 지난 2월 6일-8일까지 3일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회단체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 이번 실습 교육은 법대생들이 기초적인 인권의식을 갖춰 자신들의 공부와 제반 활동을 전개하는데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 주로 이루어진 교육은 인권개론, 국제인권법,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실 등이었습니다.

- 이번 실습자들은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인권 동아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권정보자료실> PC 통신 서어비스

인권/법률상담 시작하기로

- 애초 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던 인권/법률상담이 3월1일부터 시작 됩니다. 인권/법률상담은 Hinet-P망을 통해 접속된 상담문의를 통신 또는 팩시밀리로 상담대답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담실장에는 윤기원 변호사, 부실장에는 조광희 변호사가 내정되어 있으며, 사법연수생 10여명이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약부호(Hnews)를 통한 통신접속 문제는 Hitel 메뉴 조정 관계로 인해 3월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5호 발간

- 항상 100호 단위로 묶어 오던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5호(95년 5월 12일-10월 12일分)가 발간되었습니다. 판매가 1만원.

- 운영, 자문위원님들에게는 이미 발송해 드립니다.

유엔 아동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벌인

'거짓보고에 대한 대책활동 전개중

- 지난 1월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보고서 심사회기에서 한국정부 대표는 여러 위원들에게 "한국 정부는 아동권의 신장을 위해 정부, 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중이다"라고 보고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국가발전위원회>라는것은 구성된바도 없으며 위원으로 선임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작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식사모임을 한 차례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정부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있지도 않은 위원회를 마치 존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거짓 보고한 것은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여 이 사실을 해당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민간단체에 알리고 담당 부서인 외무부에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인권교재 2 <재소자 인권 -

감옥의 모든것> 집필작업 개시

- 그간 감옥에 가족을 두고 있는 재소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재를 여러 각도로 구상해 오다가 우선은 감옥안의 일을 가능한 쉽고, 상세하게 알수 있게 하는 문답식의 인권교재를 올해 안에 발간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이번 인권교재는 실제 감옥살이를 한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집필을 할 예정입니다.

제2기 공개강좌 자료집 나와

- 지난 95년 하반기에 주 1회씩 벌여온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기 자료집은 강사의 발제문, 녹음된 강의내용과 토론내용, 관련 주요자료등을 담았습니다.

- 총 12차례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강좌 내용은 세계의 사형제도, 동성애자의 인권, 부랑인의 인권, 장애인의 고용문제, 여성관련 첩폐조약, 보안관찰법, 판례로본 국가보안법 등입니다.

- 자료집은 1만원에 판매합니다. 또한 자료실에는 강좌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이용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에 기사 제보를!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섭시다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이 사상 최악의 수재를 당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연합등 재야단체와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에 인권운동사랑방도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구좌로 정성껏 성금을 보내주시면 이를 모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북한 동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금구좌>

한일은행 112-182999-12-001

예금주: 서준식

96-02분기 재정보고('96 01/16- 02/15)

* 전기 이월금 - 741,676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1,787,200	활동비	4,070,000
자문,운영위원회비	2,730,000	통신요금	1,783,620
사업수익	2,643,000	사업비	266,930
기타수익	40,000	사무기기	1,168,836
차 입 금	1,000,000	사무비품	161,070
		사무실유지비(집세포함)	549,186
		복사비	111,100
		발송비	415,46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433,550
		기 타	80,000
계	8,200,200원	계	9,039,752원

* 결 산 잔 액 - 1,581,228원

<96년 1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소식

이번에는 95년 9월에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자료들을 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여성개발에 관한 아·태각료회의의 자카르타 선언·아태여성발전 행동계획/ 한국여성개발원 번역/ 34쪽/ 자료집/ 95.12/ KO, EN
: 아태지역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21세기 초까지 지역국가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발전 전략 세미나/ 한국여성NGO위원회 지음/ 89쪽/ 자료집/ 94.10/ KO
: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 의의와 민간단체의 역할 그리고 세계여성회의의 주요 이슈인 여성과 개발, 여성과 정치세력화, 여성과 인권, 문화의 실천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95 유엔세계여성대회와 NGO의 역할/ 아·태 지역 NGO회의 한국참가단 지음/ 58쪽/ 자료집 / 93.11/ KQ
: 북경여성회의를 준비하기위한 첫 지역회의인 아태지역 NGO회의의 성격과 의미, 과제를 설명하고 총평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다루어진 여성의 노동, 농업, 문화, 교육, 정치, 경제성, 폭력, 가족, 환경 등 분야별 보고 및 행동계획이 실려 있다.

◎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한국여성NGO위원회/ 62쪽/ 자료집/ 93.12/ KO
: 아·태지역 NGO회의의 결과로 동아시아여성포럼이 개최되었고 이 포럼에서 채택된 "21세기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선언과 행동계획"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여성개발, 여성과 정치, 여성과 인권, 여성과 교육·문화, 전쟁·평화의 다섯개로 나뉘어 총 60여개의 보고서를 담고 있다.

◎ NGO보고서 작성 준비 심포지움/ 한국여성 NGO위원회/ 100쪽/ 자료집/ 95.3/ KO
: 북경여성대회 NGO 행동강령 초안과 아·태지역 여성개발 행동강령, 21세기를 위한 세부실천 강령,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 전략이 수록되어 있다.

◎ EQUALITY BY THE YEAR 2000? Amnesty International's for the Fourth UN World Conference Womens Platform for Action/ AI 지음/ 13쪽/아티클/ 94.9/ EN
: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 여성인권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제시한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안으로 여성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난민, 개발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 Second memorandum to governments on the revised draft Platform for Action of the Fourth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AI 지음/ 9쪽 / 아티클/ 95.6/ EN
: 94년 제출한 국제앰네스티의 북경여성대회에 대한 권고안에 이어 여성에 대한 권력 부여 (woman's emperwerment)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운동가, 전쟁과 여성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번역/ 131쪽/ 자료집/ 95.12/ KO,EN
: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임을 선언한 북경선언과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전략을 담은 행동강령이 수록되어 있다.

◎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활동보고와 전망 /이상덕 지음/ 4쪽/ 아티클/ 95/ KO
: 한국 민간단체의 총무였던 이상덕씨가 북경여성회의에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인권운동의 활성화와 국제연대를 증진키 위해 작성한 글이다.

◎ 제4회 북경여성대회 비정부(NGO) 포럼 참가기/ 김미연(빛장을 여는 사람들) 지음/ 75쪽/ 자료집/ 95/ KO
: 세계 여성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여성 장애인들의 민간단체를 소개하고 있다.